

종합·해설

# 손학규 “순천 시민에 미안하고 고맙다”

# 민주당 지지율 4·27후 줄곧 1위

민주 31.8%·한나라 31.4% ... 대선구도 손학규·박근혜 양강체제 눈길

## ‘100일 희망대장정’ 재개 지역 의견 수렴 ‘수도권 투톱체제’ 호남 위기감 달래기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4·27 순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순천 무공천을 강행한 데 대해 순천시민들이 맘에 내키지 않았지만, 큰 결단을 해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고개를 숙였다.

손 대표는 4·27 재보선으로 중단됐던 ‘100일 희망대장정’을 재개하면서 첫 방문지로 순천을 선택했다.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통큰 양보’로 야권연대의 승리를 이끈 순천은 재보선 이후 야권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손 대표에게 아주 특별

한 곳이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이날 순천에서 지역 당직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토론탐담’을 열어 정국 및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순천의 무공천은 여차피 중앙당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시민들은 무척 서운하고 야속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순천시민들의 고민과 큰 결단 덕에 결국 대한민국의 새역사를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 같은 시민들의 결단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전 국민을 상대로 어깨를 펼 수 있게 했으며, 신뢰를 갖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적 명분이 만들어졌다”고 순천시민에게 거듭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민주당이 사지로 여겼던 분당에서 승리한 기쁨은 순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이는 순천에서 야권 단일화와 야권연대의 명분을 거머쥘 수 있었기에 국민이 투표로 호응해줬고, 신뢰감의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향한 야권통합 논의와 관련하여도 언급했다.

손 대표는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수도권 투톱 체제’가 구축되

면서 ‘호남 물갈이론’이 부상하는 데 대한 호남의 위기감을 달래는데도 주력했다.

그는 “호남의 지지 없는 민주당은 생각할 수 없고 호남을 버린다는 건 더더군다나 상상할 수 없다”면서 “전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는 민주당이라야 집권할 수 있고 집권을 통해 호남 지지자들의 기대치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1돌을 맞는 18일 전남도당 회의를 열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5·18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이지만 한나라당을 계속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9~13일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정례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 1.8%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32.2%)이 한나라당(30.3%)을 앞질렀다.

리얼미터의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1.8%로 앞서면서 한나라당을 0.4%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밝혔다.

4·27 재보선 승리 효과에 힘입어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한나라당을 제친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했고 한나라당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2~13일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해럴드 경제’의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서도 민주당(32.2%)이 한나라당(30.3%)을 앞질렀다.

리얼미터의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0.9%로 1위를 유지했고, 이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전주 대비 2.3%포인트 떨어진 11.8%로 2위를 지켰다. 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1.8% 하락한 10.7%로 3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손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위협했다. 해럴드 경제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박근혜 30.5%, 손학규 13.0%, 유시민 9.4%

순이었다.

한편, 박 전 대표와 손 대표의 양강 대선구도 형성이 시작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매일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0.5%가 차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박 전 대표를, 17.9%가 야권의 적임자로 손 대표를 꼽아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박 전 대표와 손 대표가 맞붙는 양자구도가 됐을 경우 박 전 대표 지지도는 51%, 손 대표는 27.5%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대표가 17일 순천시청에서 열린 희망대장정 순천 시민토론탐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로운 한나라’ 당권·대권 분리 고수

한나라당 새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한나라’는 17일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현행 당헌을 고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또 모임 차원의 후보 단일화는 당내 비판여론을 감안,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한나라’는 오전 회원 20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 외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 당헌의 개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공동 간사인 정태근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모임은 또 오는 7월4일 전당대회에

서 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한 가운데 일부 이견이 나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특히 모임 차원의 후보 단일화 여부도 관련,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보다 당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바로잡고 이를 실천하는데 역할을 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단일화 작업은 ‘새로운 한나라’와는 별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왕차관’ 박영준 총선출마 사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지난 16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행보로 전해졌다.

박 차관과 가까운 한 여권 관계자는 17일 “박 차관은 총선에 나가려고 차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사퇴에 다른 배경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도 “박 차관이 총

선에 나가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사의가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고향인 경북 칠곡에 출마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차관의 사의 표명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이 대통령에게도 박 차관의 뜻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국회 포퓰리즘 입법활동

## 시민단체, 즉각중단 촉구

21세기미래교육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으로 구성된 31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유기업원이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포퓰리즘이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며 “표가 되는 것이라면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관심을 쓰고 보자는 식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는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을 늘릴 것이며 조세 저항 때문에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파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손학규發 인적쇄신 어디까지...

## 민주당 대변인 등 주요보직 잇단 사의 ... 정책위장 ‘이용섭카드’ 부상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직 개편 등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에 나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27 재보선 이후, 여권 발(發) 쇄신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담보되지 않는 한 내년 총선,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1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만이 국민의 주목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쇄신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당의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당내 인적 변화가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전남대 행정대학원 특강에서 “주요 보직에 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 손 대표의 인적쇄신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춘석, 차영 대변인이 이날 손학규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우재창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에 이어 양승조 비서실장이 이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손 대표의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하며 바 있다.

또한, 이낙연 사무총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일단, 이 총장이 손 대표와 임기를 함께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진사퇴설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 대표 핵심 측근은 “아직까지 이 총장의 거취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며 “호남 출신의 이 총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도 관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대표 2기 체제도 점차 운곽을 드러내고 있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정장선, 재선의 박영선, 우재창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초선의 이용섭 의원이 ‘깜짝 카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총부 출신 재선의 노영민 의원이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게 됐으며 원내 대변인에는 홍영표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조만간 전라호보본부장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교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분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0명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근무조건**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경운기 작동 가능자  
**근무장소** 전남 화순군 영남리  
**급여** 면접 후 결정  
**접수방법** 팩스접수 / 방문접수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본 1통  
**연락처** 062)651-8871  
010-3763-7335  
FAX 062)652-8866

**서광타워(주)**

### 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 ▶ 대상: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액: 500만원~8,000만원
- ▶ 금리: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인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액: 500만원~5,000만원
- ▶ 금리: 년 9%~
- ▶ 대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대구광역시 대표자: 백영학  
제1금융권이자율(최저년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최저년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최저년33%~44%(연체금리 44%))

###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밝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밝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3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밝기가 절됩니다.

성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